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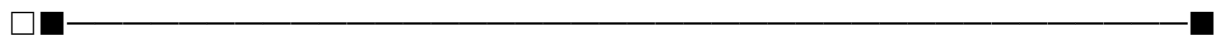
Multilingual Electronic Newsletter

多言語メールマガジ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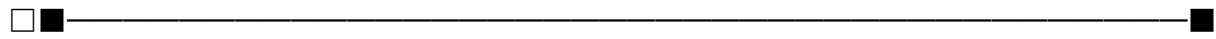
かごしま南の風便り



Kagoshima Southern Wind Tidings



가고시마현청 다언어 정보지 「가고시마 남쪽바람소식」



VOL.168

1 가고시마 국제교류 A - Z

현비 유학생이 가고시마에 왔습니다.

2 관광 가고시마 제철 정보

가미카와오타키 공원(神川大滝公園) (긴코초)

3 국제교류원 칼럼

처음 뵙겠습니다!

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버퍼드 포피 (영국 출신)

4 지사 관련 새소식

주후쿠오카 태국 총영사가 방문하였습니다. (5 월 11 일)

주오사카 호주 총영사가 방문하였습니다. (5 월 30 일)

●현비 유학생이 가고시마에 왔습니다.●

현비 유학생 제도는 본 현 이주자의 자제가 현내 대학에서 유학하며, 모현(母県)의 실태를 숙지함과 동시에 본 현과 이주국 간의 긴밀화에 공헌할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에 의해 금년도 5 월 16 일에는 브라질과 페루에서 각 1 명, 5 월 29 일에는 브라질에서 1 명이 가고시마를 찾아 총 3 명의 현비 유학생이 가고시마에서의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2020 년도와 2021 년도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 유학생들의 일본 입국이 불가하여 본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만, 금년도 5 월 드디어 유학생들을 맞이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비 유학생 3 명은 내년 2 월까지 약 10 개월간 가고시마에 체류하며 가고시마대학에서 각자의 전문 분야를 공부합니다.

3 명의 현비 유학생에게 유학 기간 동안의 목표를 물어보았습니다.

스에히로(末廣) DE PAULA E SILVA ALEXANDRE 씨 (브라질 · 가고시마대학 공학부)

가족, 친구, 역사 그리고 미래를 위해 선조들의 뿌리에 대해서 더욱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해 온 것처럼 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통해서 멋진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시로야마(城山) 전망대



쓰루마루성 고로문(鶴丸城御楼門)

가와사키(川崎) DANIELA 유카 씨 (브라질 · 가고시마대학 법문학부)

가고시마현의 문화, 기술, 관광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일본어를 배워서 제 가족의 역사와 이어지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데루쿠니 신사(照國神社)

구와에(桑江) 오바라(小原) DIEGO 씨 (페루 · 가고시마대학 교육학부)

유학 기간 중 많은 사람을 만나 견문을 넓히고, 나중에는 석사 학위를 취득하러 가고시마에
돌아오고 싶어요!



구와에 씨

대학 친구들과 함께



구와에 씨

세미나 친구들과 함께

가미카와오타키(神川大滝) 공원 (긴코초)

이번 달 사진은 긴코초(錦江町)에 위치한 「가미카와오타키(神川大滝) 공원」입니다!

이 공원은 가미카와오타키 폭포를 비롯해 작은 폭포,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산책로 등 웅대한 자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박력 있는 가미카와오타키 폭포에 다가가면 물보라가 일어 음이온을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높이 68m 에 위치한 「무지개 현수교 오타키 다리(虹のつり橋大滝橋)」에서는 마치 드론으로 촬영한 듯한 절경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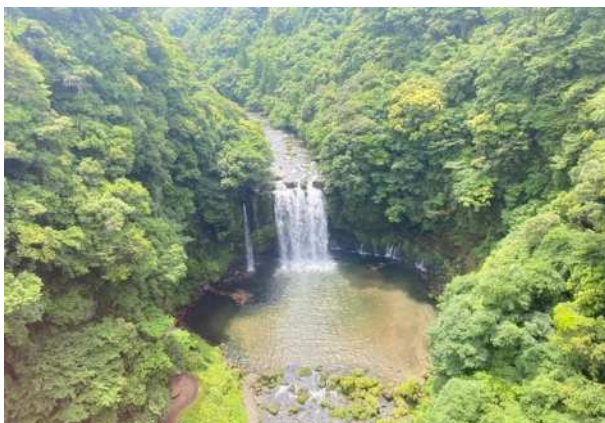
이 계절에 추천드리고 싶은 관광 명소입니다!



가미카와오타키(神川大滝)



무지개 현수교 오타키 다리(虹のつり橋大滝橋)



멀리서 바라본
가미카와오타키(神川大滝)

●처음 뵙겠습니다!●

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버퍼드 포피 (영국 출신)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영국 런던 출신의 포피입니다. 현재, 가고시마현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저의 주된 업무는 번역입니다. 가고시마에 온 것은 작년 12 월로 가고시마에서 여름을 나는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어를 배우게 된 계기는 런던의 국제교류기금(The Japan Foundation)이 개최한 학교 이벤트에 참가하면서부터입니다. 친구와 함께 참가한 그곳에서 일본어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자의 아름다움에 더해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로 이루어진 문자 체계에 흥미를 느껴 더욱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일본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학교 4학년 때 JET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교류원에 응모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JET 프로그램에 참가해 볼 것을 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저는 일본의 대학에서 1 년간 유학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그 기간이 반 년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프로그램이 일본어를

이즈미(出水)의 학

향상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가고시마에 오기 전까지는 이곳을 잘 알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매일 가고시마의 문화, 역사, 자연 등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가고시마에 있다는 것은 정말로 멋진 일입니다.



같은 이름의 카페 「포피」 (메이잔보리(名山堀))

저의 취미는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는 것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멍하니 건물이나 일상의 풍경을 그리는 것이 즐겁습니다. 저는 가고시마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메이잔보리(名山堀)」라는 마을의 레트로한 분위기를 좋아하는데 언젠가 이곳을 그려 보고 싶습니다.

음악에 관해서는 장르나 연령에 관계 없이 이제껏 들어 보지 못한 앨범을 찾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고시마에서도 몇 군데의 레코드 숍을 찾아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음악을 듣고는 합니다!



실은 이번 8월에 영국으로 귀국합니다.

지난 몇 개월간 정말로 즐거웠고, 많은 가고시마 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남은 기간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주후쿠오카 태국 총영사가 방문하였습니다.●

지난 5월 11일, Sorut Sukthaworn 주후쿠오카 태국 총영사가 현청을 예방하였습니다.

작년 10월에 취임한 총영사는 태국과 규슈 간의 교류 및 일본 유학 시절에 가고시마를 방문하여 페리를 타고 사쿠라지마에 갔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지사는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호스트 타운을 계기로 한 주니어 배구팀의 상호 파견 및 본 현과 태국 럭비팀의 교류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가고시마현과 태국을 잇는 교류를 계속해 나가고 싶다고 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고시마와 태국 간의 교류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주오사카 호주 총영사가 방문하였습니다.●

지난 5월 30일, Holloway 주오사카 호주 총영사가 현청을 예방하였습니다.

총영사는 「2020년 12월에 취임하였으며 가고시마 방문은 이번이 3번째다. 4년 전 내방 시에는 사쿠라지마를 다녀왔으며, 이번에는 본격 소주와 향토 요리에 대한 기대가 크다. 또한, 올해 가고시마에서 개최되는 전국 와규 능력 공진회에도 관심이 높다.」 등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사는 세계자연유산인 야쿠시마와 아미미오시마·도쿠노시마를 소개하였으며, 앞으로 양국 간의 왕래가 다시 가능해지도록 매진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가고시마현에 있습니다. 무단게재와 불법복사를 금합니다.